



아름다운 비행

1일 인천 선학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에서 한국 대표팀의 김은아가 상대 수비의 집중 마크를 뚫고 슈트를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안 자매의 '우생순 신화'

女 핸드볼 8년만의 우승...김은아·선화 자매 금메달 리스트 탄생

핸드볼에서 '자매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했다. 한국 여자핸드볼이 1일 인천 선학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결승에서 29-19로 이기며 2014 인천아시안게임 패권을 차지했다. 2006년 도하대회 이후 8년 만에 차지한 아시안게임 정상이다. 한국은 6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2010 광저우 대회에서 일본에 막혀 결승 진출을 이루지 못했다.

무안출신의 김은아(26·김선화(23·이상 인천시청)는 '자매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12 런던 올림픽,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한국여자 핸드볼의 간판 스타로 활약해온 김은아는 동생 김선화와 나란히 태극마크를 단데 이어 함께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면서 기쁨이 두 배가 됐다.

김은아는 "런던 올림픽 때는 동생이 대표팀에서 뛰지 못했고, 그 뒤에는 내가 부상으로 대표팀 공백기가 있어서 처음으로 함께 뛰게 된 큰 대회인데 금메달을 따서 기분이 좋다. 특히 전에 졌던 것을 되갚고 싶었던 일본을 상대로 우승해 기분이 더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선 큰 대회에서 정상 도전에 실패했던 부분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털어냈다. 금메달을 이뤄냈다는 마음에 긴장감이 풀려 2일



김선화

에는 몸살로 몸져눕기도 했다.

김은아는 "광저우 대회에서는 일본에서 저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고 런던 올림픽에서는 첫 경기에 다쳐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대표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결승전에서 좋은 경기를 하게 돼서 기쁘다"고 언급했다.

동생은 힘든 선수생활을 지지해주는 버팀목이자 자신을 채찍질하게 하는 동기라는 설명이다.

김은아는 "사실 둘이 잘 싸운다. 가장 잘 알고 믿는 사람이라 동생에게 투정을 하게 되고 동생도 그런 마음이라서 티격태격 자주 싸우는데 금방 풀린다. 없으면 허전하고 당연한 존재다. 또 동생한테 좋은 언니가 되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 팀 규율이 있어서 혼낼 때는 동생에게 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서운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동생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볼링 이나영, 한국 첫 4관왕

여수출신 박종우, 마스터스전 금빛 피날레 '3관왕'

한국 볼링이 여자 4관왕과 남자 3관왕을 배출했다. 여자 볼링의 간판 이나영(28·대전시청)이 마스터스에서 금빛 피날레를 장식하며 한국 선수 중 처음으로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나영은 2일 안양 호계체육관 볼링장에서 열린 여자 마스터스 챔피언결정전에서 2게임 합계 477점으로 왕야팅(26·437점)을 제치고 4관왕이 됐다. 24년 만에 아시안게임 4관왕이 나왔던 2010년 광저우 대회 황선옥(류시연으로 개명)에 볼링에서 2회 연속 4관왕이다.

여수출신의 남자 대표팀 막내 박종우(23·광양시청)도 남자 마스터스 챔피언결정전에서 금빛 스트라이크를 선보이며 3관왕에 등극했다. 5인조와 개인종합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박종우는 대회 마지막 경기인 마스터스에서 2게임 합계 407점을 기록, 우수홍(홍공·401점)을 꺾고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종우는 2010년 광저우대회 최복을(27·광양시청)에 이어 남자 3관왕이 됐다.

한국 여자 근대 5종은 사상 첫 아시안게임 단체전 우승을 이뤘다.

양수진(26·LH), 정민아(22), 최민지(21·이상 한국체대), 김선우(18·경기체고)로 꾸려진 여자 대표팀은 2일 합계 5120점을 얻어 4760점에 그친 일본을 제치고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2002년 부산 대회 이후 첫 금메달이다. 양수진은 은메달(1312점), 최민지는 동메달(1298점)까지 더하며 개인전에서도 역대 최고 성적을 썼다.

정구의 금메달 독식이 계속됐다. 광양출신의 주옥(25·NH농협은행)은 팀 동료인 김예경(26)과 정구 여자 복식 금메달을 합작했다. 주옥과 김예경은 대표팀 동료 김지연(20·육천군청)-윤수정(25·안성시청)과의 맞대결에서 5-1로 승리하며 광저우 은메달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메달을 획득했다.

김동훈(25)-김범준(25·이상 문경시청)은 남자 복식 결승에서 린팅훈-리자홍(이상 대안)에게 5-2로 이기는 등 한국은 이번 대회 남녀 단식, 혼합복식에 이어 남녀 복식 우승까지 독식했다.

'금빛 발차기'도 이어졌다. 태권도 스타 이대현(22·용인대)이 남자 63kg급 결승에서 아카린 키트워찬(태국)을 2라운드 만에 18-2, 점수차 승리로 제압하고 아시안게임 2연패를 이뤘다. 태권도 대표팀 막내인 여고생 이다빈(18·효정고)은 여자 62kg급 결승에서 장화(중국)를 8-7로 꺾고 금메달을 땀했다.

남자 카바디에서는 사상 첫 동메달이 나왔다. 한국은 카바디 중추국인 인도와의 준결승에서 25-36로 패했지만 동메달 결정전을 따로 치르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男 볼링 박종우



# “눈물 없인 ‘金’ 없죠”

AG 무대 위해 자신과 혹독한 싸움...경기 후 감격의 폭풍 눈물

짧은 머리에 다부진 체격, 무서운 기세로 필드를 뛰어나니 그녀가 다시 또 눈물을 보였다.

지난 1일 한국 여자 하키 대표팀이 인천 선학하키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김다래(아산시청)의 골로 중국을 1-0으로 꺾었다.

1998년 방콕대회 이후 16년 만에 찾아온 금메달. 특히 지난 광저우대회 결승에서 패배를 안겨준, 대회 3연패를 달리고 있던 중국을 상대로 한 우승이었기에 선수들의 감격은 더 컸다. 눈물이 가득했던 결승전, 며칠 전 인도와의 준결승전에서도 마음이 쩡해지는 눈물이 있었다.

준결승전의 수훈 선수는 박미현(28·kt)이었다. 실재 없이 필드를 오가던 그녀는 2-1로 앞선 3쿼터에서 쇄기 골을 넣으며 한국의 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경기가 끝나고 믹스존에 선 박미현은 조금 전에 봤던 박미현이 아니었다. 다소 곱게 두 손을 모은 채 사기된 목소리로 인터뷰를 하는 박미현에게서 한 마리 야수 같았던 10번을 단 선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침착하게 경기 상황에 대해 얘기하던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주장' 김중은(28·아산시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 경기 초반 김중은은 발목부상으로 실려나간 뒤 끝내 필드로 돌아오지 못했다. 예상치 못했던 부상 변수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됐지만 박미현은 "아마 주장도 우리의 마음을 알 것이다"며 눈물을 보였다.

## 女 하키 박미현



4년 전 패배를 곱씹은 박미현은 "은빛이 아니라 금빛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힘있게 준비했다. 나에게 마지막 막이 될지 모르는 무대다. 이번에는 반드시 중국을 꺾고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며 그렇게도 바라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의 눈물도 있었다. 5인조와 개인종합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남자 볼링 2관왕이 된 지난 30일 박종우(23·광양시청)는 경기 끝난 뒤 취재진들을 당황케 할 정도로 많은 눈물을 쏟아냈다. 큰 무대에 서기 위해 견뎌야 했던 힘든 시간, 남자 볼링의 자존심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났다는 박종우.

늘 정상에서 서 온 여자 대표팀과 맞물려 남자선수들에게는 '들러리'라는 얘기가 그들에게 따라 다녔다. 이번 대회에도 한국 선수단 첫 3관왕인 이나영을 앞세워 승승장구했던 여자대표팀과 달리 남자대표팀은 뒤늦게 메달 수확에 나서면서 마음 고생을 했다.

눈물이 지나간 뒤 진행된 기자회견장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은메달을 딴 말레이시아 선수단 대표가 서툰 한국어로 "아름다운 밤입니다"를 외쳤기 때문이다. 소감 마무리는 "감사합니다"였다.

4시간이 넘도록 계속된 힘든 5인조 경기. 긴 레이스가 끝난 뒤 고생했다며 서로를 위로하고 축하하던, 국적도 나이도 생김새도 다른 이들은 그렇게 하나가 돼서 웃었다. 4일 폐막을 앞둔 아시안게임. 눈물과 웃음이 공존한 감동의 무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인천=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